

재개발 해체지역 어떻게 살릴까?

전주시, 사람의 도시 주거지재생 2차 포럼서 주거환경관리 방향 논의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수립 주거지재생·환경관리 프로젝트 구체화

전주시가 재개발 해체지역 등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4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해 자체적인 재생 정책과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의도시 주거지재생 2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해체지역 등 주거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재개발 해체지역에 대한 재생 계획 수립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가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이곳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데 따라 이곳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체된 지역은 지난 2012년 10개 구역, 2015년 2개 구역, 2016년 8개 구역 등 20개 구역으로, 앞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추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 주거환경 관리와 기초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다올마당 운영 등을 통해 주거지재생 및 주거환경관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시의 구도심 쇠퇴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주시민의 자체적인 주거환경관리 방안 및 대안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지재생을 추진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잔소리 하지마' 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2심도 징역 10년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정신분열병)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주교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4분께 전북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 짜증이 나서 화끈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뉴스시



우체국 연하카드 판매 2019년을 한달여 앞둔 4일 전주시 전주우체국에서 우체국 연하카드 판매가 한창인 가운데 직원들이 연하카드를 선보이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형 도피 교사' 혐의 최규성 전 농어촌공 사장 검찰 출석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시검은 이날 오전 9시에 비공개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전 사장은 검찰에 쫓기던 친형인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을 8년 2개월간 숨겨 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사장실과 최 전 사

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계속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0명이 이번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피

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24량대 아파트에서 살며 휴대폰 등을 사용해왔다.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최 전 교육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페셜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쟁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뉴스시

작년 12월 도내 화물차 사고 사망자 최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전북경찰 등과 합동 특별대책 마련 안전기준 위반 등 집중 단속·졸음운전 예방용품 등 배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연말을 맞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 전라북도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에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7명이며 이중 화물차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월 평균 1.4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해 12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물차 39.5%(17명), 버스 23.3%(10명), 택시 16.3%(7명), 렌터카 13.9%(6명), 전세버스 7.0%(3명) 순이다.

공단은 이번달 12월을 화물차를 타 것으로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9, 12 지구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읍, 구, 직 재발방,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자력적여부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티크,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하고 있다.

행기록자료를 활용한 교통안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로 지점의 시설 개선을 지속 건의한다.

또한, 교통봉사단체로 구성된 100인의 블랙박스 감시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전북교통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한다.

이와 더불어, 안행순찰차 및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한 점에 착안,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통해 단속한다. 또 휴게소 등에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합동으로 병행한다.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화물차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여 경찰서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들과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이남숙 전주시의원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선"을

이남숙 전주시의원(동서화, 서서화, 평화, 2동)이 저소득층 대상의 정부양곡(나라미)할인지원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기준 월 10kg의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받고 있으나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지원량과 소비량의 차이 등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지원 받은 쌀의 경우 질이 떨어지는데 양 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남숙 의원은 "정부양곡 지원사업의 많은 문제점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곡 신청에서 배송 후 소비되는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안산구 3억7,948세대와 덕진구 2억1,036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했으며 총 지원 금액은 14억원이 넘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복원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복원위위원회가 4일 전주시 자연생태관과 어울림센터로 현장방문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곳을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생태관이 리모델링 한 후 관람객 수가 오히려 줄었다며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전주시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공간 조성을 당부했다.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자연생태관이 한옥마을과 더불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사회통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생활한복을 입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방탄소년단. (출처=트위터 @mighty_jimin)

BTS가 입은 전주생활한복 '화제'

지민, 한복 브랜드 '리슬' 디자인 중 '사족 슬랙스' 라는 바지 착용 눈길

글로벌 K-POP 그룹으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시상식에서 전주생활한복을 입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생활 속 한복 착용 문화 확산과 한복산업 활성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방탄소년단(이하 BTS)은 지난 1일 진행된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한복을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BTS 멤버들은 이날 무대에서 점퍼와 셔츠, 위커에 두루마기, 한복 바지를 믹스 매치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특히, BTS 멤버 중 지민이 착용한 바지는 전주한복업체인 '리슬'의 황이슬 대표가 디자인한 것으로, 전통 한복바지의 사족을 여여 입는 방식과 슬림하게 떨어지는 서양식 슬랙스를 융합해 만든 '사족 슬랙스'라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한복이지만 지퍼와 단추로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입기가 간편하고 파

워풀한 총동작도 가능해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한복'이다.

황이슬 디자이너는 전주한복다올마당 위원과 한복 디자이너로 전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한복 활성화 사업과도 인연이 많다.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전주 한복 특목&퍼티' 행사도 황이슬 대표가 진행하는 행사로 한복토크쇼와 한복 스타일링쇼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송정화 전주시 한문화담당장은 "그동안 전주시는 한복의 날 등 한복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왔으며, 그중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생활한복브랜드인 전주의 리슬을 여여 입는 방식과 슬림하게 떨어지는 서양식 슬랙스를 융합해 만든 '사족 슬랙스'라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한복이지만 지퍼와 단추로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입기가 간편하고 파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전주시, 2020년 11월까지

전주시가 가족친화인증을 잘 시행해온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인증을 받은 후 3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을 재평가 받아 오는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소속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직원 동호회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자녀 위탁교육 지원 △가족친화교육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권장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왔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초과근무를 지양토록 하는 등 자녀를 위한 정시 출퇴근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써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연장 승인으로 전주시청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현재 전주시와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인 저출생 대응에도 선순환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족친화 경영은 누구든지 조직사회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비둘기 때문에 불편했던 다리밀 환경 개선

완산구, 사평·홍산·마전·완산·서곡교 등에 서식 방지망 설치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하천부지 산책, 운동기구 이용 중 불편했던 다리밀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교량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평교 등 6개 교량에 올 12월부터 비둘기 서식 방지망을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유통인구가 많고 운동시설이 밀집된 사평교, 홍산교, 마전교 등 3개 교량에 대해서 올 12월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산교, 호차다리, 서곡교 등 3개 교량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 방지망 설치로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비둘기 배설물에 존재하는 산성 물질에 의한 교량 구조물의 부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산구는 싸전다리 및 다가교에 비둘기 서식 방지망을 설치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 6개 교량 추가 설치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 방지망 설치 대상 6개 교량은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곳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이나 운동기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관내 구석구석을 두루 살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